# 논 술 (인문계)

아래의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가)

학문 연구를 예술 활동과 구분 짓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다. 그것은 학문 연구가 진보의 과정 속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예술에는 학문 분야에서와 같은 의미의 진보가 없다. 새로운 기술적 수단을 개발했던 시대의 예술품이 그 전 시대의 예술품보다 순수한 예술적 관점에서 항상 뛰어난 것은 아니다. 가령 원근법을 개발했던 시대의 예술품이 단지 원근법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이 만드러진 예술품보다 낫다고 할 수 없다. 후자의 예술품이 원근법 같은 기술적 조건과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예술성에 합당하도록 대상을 선택하고 형상화하여 재료적 적합성과 형식적 적합성을 지니게 되었다면 그렇다는 것이다. 진실로 '완성'된 예술품은 능가되지도 낡아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완성된 예술품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는 얼마든지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예술적 의미에서 진실로 '완성'된 작품이 다른 하나의, 역시 '완성'된 작품에 의해 '추월당했다'라고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예술 분야와 달리 학문 분야에서는 어떤 연구 결과든 10년, 20년, 50년이 지나면 낡은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그것이 학문 연구의 운명이자 목표이다. 학문은 그것과 유사한 운명에 처한 여타의 문화 영역들과 달리 매우 독특한 의미에서 이 운명과 목표에 예속되고 내맡겨져 있다. 학문상의 모든 '완성'은 새로운 '질문'을 뜻한다. 그 완성과 질문을 통해 학문은 '능가'되고 낡아버리기를 바란다. 학문에 헌신하려는 자는 누구나 그 과정을 감수해야 한다. 물론 학문적 업적이 그것의 예술적 우수성 때문에 '향유 수단'으로서 또는 학문적 작업에 대한 훈련 수단으로서 지속적으로 그 중요성을 유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거듭 말하지만 학문적으로 능가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운명일 뿐만 아니라 목적이기도 하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멀리 나아가기를 희망하지 않고서는 연구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진보가 무한히 계속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학문의 의미를 문제 삼게 된다. 학문이 무한한 진보라는 법칙에 예속된다는 것이 과연 그 스스로에게 본질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그다지 자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째서 우리는 결코 종결되지 않으며, 또 종결될 수도 없는 일을 하는 것인가? 그 물음에 대한 답으로 순전히 실용적인 목적, 즉 광의의 기술적 목적이 거론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 학문적 경험을 통해 가능해진 예측과 기대를 우리의 현실적 행위에 길잡이로 삼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런 답은 실용성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만 의미를 지닐 뿐이다. 그러나 학문 연구라는 자신의 직업에서 학자가 진정 추구하는 바는 무엇인가? 학문 연구는 그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학자는 주장한다. 학문 연구는 세상 사람들이 사업적으로나

뒷장에 계속 ☞

기술적으로 성과를 얻도록 하기 위해, 다시 말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자는 항상 낡아버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업적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가? 그의 작업은 전문 분야들로 나뉘어 무한히 진행되는 과정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며 이내 낡아 버린다. 그 속에서 그는 도대체 어떤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믿는가? 이 물음은 어떤 보편적인 성찰을 요구한다.

학문의 진보는 우리가 수천 년 전부터 겪어온 저 지성화 과정의 작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해 요즘 사람들은 대개 매우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선 과학과 과학 기술에 의한 지성적 합리화가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지를 살펴보자.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인디언이나 호텐토트인보다 자신의 생활 조건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가? 그렇다고 하기는 어렵다. 전차를 타는 우리 중의 어느 누구도 전문 물리학자가 아닌 한 전차가 어떻게 해서 움직이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또 알 필요도 없다. 전차의 작동을 '신뢰'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하며 그 신뢰에 기초하여 행동한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전차가 움직일 수 있도록 제조되는지에 대해 전혀 모른다. 미개인은 그의 도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알고 있었다. 오늘날 우리는 돈의 가치에 따라 물건을 적거나 많게 구매한다. 그러한 행동이 돈의 어떤 속성에 의해 가능한지 질문한다면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대답을 하리라 나는 장담한다. 심지어 경제학자들마저도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처럼 일상적인 행위에 대해서조차 우리는 분명하고도 일치된 이해를 지니지 못한다. 그러나 미개인은 매일 매일의 식량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며 그렇게 하는 데 어떤 제도들이 도움이 되는지를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지성화를 통한 합리성의 증대가 우리가 처해 있는 생활 조건에 대한 일반적 지식의 증대와 곧바로 연결되지 않는다. 지성화가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는 지식의 획득 가능성이다. 지성화를 통해 우리는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라도 삶의 조건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며, 삶에서 작용하는 어떤 힘들도 원래 신비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힘들이 아니므로 모든 사물이 원칙적으로는 계산을 통해 지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거나 믿게 되었다. 이것은 세계의 탈 주술화를 뜻한다. 우리는 더 이상 미개인처럼 신비하고 예측할 수 없는 힘의 존재를 믿지 않으며, 주술적 수단으로 정령을 다스리는 따위의 일은 할 필요가 없다. 주술이 담당했던 일들을 오늘날은 기술적 수단과 계산이 해준다. 바로 이것이 지성화가 그 자체로서 의미하는 바이다.

뒷장에 계속 ☞

(나)

학문 연구에는 얼마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허위의 길이 숨어 있는가.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오류를 거쳐야 하는가. 그 오류는 진리가 유익한 것보다 천 배는 더 위험하다. 그러니 학문 연구가 불리하다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하다. 왜냐하면 오류는 수많은 조합으로 이루어지지만, 진리에는 오로지 한 가지 존재 양식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진리를 정말 진지하게 탐구할 사람이 있는가. 설령 최선을 다하여 탐구한들 어떤 표지를 통해 진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숱하게 다른 의견들 가운데 진리를 제대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 가장 어려운 것은, 요행으로 우리가 막판에 그 진리를 찾아낸다 한들 누가 그것을 유익하게 사용할 줄 알 것인가.

학문은 그것이 계획하는 목적을 볼 때 무용한 것이지만, 그보다는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결과로 말미암아 훨씬 더 위험하다. 학문은 무위도식에서 태어나 무위도식을 먹여 살린다. 그리하여 만회할 수 없는 시간 손실은 학문이 사회에 필연적으로 야기하는 첫 번째 폐해이다. 도덕에서건 정치에서건 선행을 하지 않는 것은 큰 악이다. 그러므로 쓸모없는 시민은 모두 해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 저명한 철학자들이여, 당신들이 연구한 결과물들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 보시라. 학자들과 가장 훌륭한 시민들의 혁혁한 업적조차 우리에게 거의 유익함을 주지 못하는데 국가의 재산을 무익하게 축내는 저 이름 없는 작가들과 무위도식하는 먹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말해 보시라.

내가 '무위도식'이라는 말을 썼던가. 차라리 그들이 무위도식에 그치면 좋으련만! 그러면 그들의 품행은 오히려 더 건전해질 것이고, 사회는 더 평화로워질텐데. 그런데 쓸모없이 미사여구만 늘어놓는 그들은 해로운 역설로 무장하고 사방으로 내닫는다. 신앙의 토대를 흔들어대며 미덕을 파괴하는 그들은 조국이나 종교 같은 오래된 말들을 조소하며, 인간들 사이에 신성한 것으로 남아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모독하는 일에 자신들의 재능과 철학을 바친다.

(다)

**갈릴레이** 네게 보여 줄 게 있다. 관측의(觀測儀) 뒤를 보렴.

(안드레아가 관측의 뒤에서 거대한 목제 프톨레마이오스 천구의(天球儀)를 끌어낸다.)

**안드레아** 이게 뭐죠?

**갈릴레이** 천구의다. 그 장치는 천체들이 어떻게 지구 둘레를 도는지 보여준다. 옛날 사람들 생각으로 그렇다는 거야.

뒷장에 계속 ☞

**안드레아** 어떻게 도는데요?

**갈릴레이** 그걸 조사해 보자. 우선 첫 번째로 할 일은 구조 설명이다.

**안드레아** 한가운데에 작은 돌멩이가 있네요.

**갈릴레이** 그게 지구다.

**안드레아** 그 둘레 여기저기에, 계속 겹쳐지면서, 테가 있어요.

**갈릴레이** 몇 개나 되지?

**안드레아** 여덟 개요.

**갈릴레이** 그건 수정 천구들이다.

**안드레아** 테 위에 둥근 덩어리들을 붙여 놨어요.

**갈릴레이** 천체들이지.

**안드레아** 여기 띠가 있고, 글자가 그려져 있는데요.

**갈릴레이** 무슨 글자?

**안드레아** 별들 이름이요.

**갈릴레이** 어떤 별?

**안드레아** 제일 밑에 있는 덩어리는, 달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해가 있고요.

**갈릴레이** 이제 해를 움직여 봐라.

**안드레아** (테들을 움직이며) 이거 멋진데요. 하지만 우리는 완전히 갇혀 있네요.

**갈릴레이** 그래, 그 물건을 처음 봤을 때 나도 그렇게 느꼈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몇 있지. 담장에 막히고 테에 둘러싸여 꼼짝 못하는 꼴이라니! 이천 년 동안 내내 인류는 태양과 하늘의 모든 천체들이 자신의 주변을 돈다고 믿었단다. 교황과 추기경, 제후, 학자, 선장, 장사꾼, 생선 장수 아낙네, 학생들이 한결같이 그 수정으로 된 구체 속에 꼼짝 못하고 앉아 있다고 생각한 거야. 하지만, 안드레아, 이제 우리는 여기를 떨치고 나가 멀리 여행을 떠나는 거다. 옛 시대는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까. 백 년 전부터 인류는 무엇인가 기다려 온 것 같다. 도시들은 비좁고, 그래서 머리도 그렇다. 미신과 흑사병을 봐라. 그러나 이제는 다르지. 지금 사정이야 어떻든, 계속 그렇지는 않아. 모든 것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꼬마 친구, 나는 그게 꼭 바다의 배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한다. 먼 옛날부터 배들은 해안을 따라서만 기어 다녔는데, 그런데 갑자기 해안을 떠나 온갖 바다로 달려 나갔거든. 우리의 옛 대륙에 소문이 퍼졌단다. 새 대륙들이 있다는 거였어. 그래서 우리 배들이 거기로 항해하게 된 다음부터, 미소 짓는 새 대륙에서는 이런 말이 돌고 있지. '그 무섭던 큰 바다가 실제로는 그저 조그만 물길이구먼.' 또한 모든 사물의 원인을 찾아내려는 관심이 크게 일어났다. 돌멩이를 손에서 놓으면 왜 아래로 떨어지는지, 또 그걸 높이 던지면 어떻게

뒷장에 계속 ☞

올라가는지, 그렇게 매일 무엇인가 발견되고 있어. 백 살 먹은 노인네들까지도 무슨 새로운 것이 발견됐는지 귀에 대고 소리쳐 달라고 젊은이에게 부탁할 정도야. 지금 벌써 많은 것이 발견됐지만, 아직 발견될 것이 더 많다. 그래서 새 세대들이 할 일이 또 있게 되지. 나는 젊었을 때, 시에나에서 공사장 인부 몇 사람이 화강암 덩어리를 움직이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밧줄을 용도에 더 잘 맞게 새로 얽었는데, 그렇게 해서 천 년 묵은 과거의 관습을 바꾸더구나. 단 오 분 동안 토론을 벌인 끝에 그랬어. 그때,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나는 옛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머지않아 인류는 자신들의 거주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는 천체에 관해 정확히 알게 될 게다.

**(라)**

학습을 통한 개체 특성의 변화는 인간 사회에서 진화가 발생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개체 특성의 변화에 따라 사회 전체의 특성도 변화할 것이다. 다음은 학습의 한 형태를 기술하고 있다.

어떤 한 사회의 구성원들을 '혁신가'와 '모방자'의 두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자. 혁신가는 비용을 들여서 새로운 지식을 획득한 후 그에 근거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하며, 모방자는 스스로 지식의 발전에 기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지식을 이용하기만 한다. 전체 인구 중에서 혁신가의 비율은 $p$이고, 모방자의 비율은 $1-p$이다.

개인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에 따라 일대일로 짝을 이루어 사회적 관계를 맺는다. 개인은 확률 $s$로 자신과 동일한 유형과 확실하게 짝지어지며, 확률 $1-s$로 유형에 관계없이 무작위로 선택된 상대와 짝지어진다. 무작위로 상대와 짝지어지는 경우 상대의 구체적인 유형은 그 사회에서 두 유형의 분포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한 개인이 자신과 동일한 특성 혹은 다른 특성을 가진 개인을 만날 확률은 $p$와 $s$에 의해 결정된다.

혁신가는 사회적 관계의 상대방이 혁신가이건 모방자이건 비용을 제외하고 1의 보수를 얻는다. 모방자는 혁신가를 만날 경우 2의 보수를 얻고, 다른 모방자를 만날 경우 0의 보수를 얻는다. 한 개인이 얻을 보수의 기댓값은 특정 유형의 상대를 만날 확률과 상대에 따른 보수에 의해 결정된다. 사회에서 혁신가와 모방자의 비율을 '사회 구성'이라고 하자. 사회 구성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할 수 있는데, 혁신가의 보수의 기댓값이 모방자의 보수의 기댓값보다 작으면 혁신가들 중 일부는 모방자로 변한다. 마찬가지로, 모방자의 보수의 기댓값이 혁신가의 보수의 기댓값보다 작으면, 모방자들 중 일부는 혁신가로 변한다. 이러한 과정의 반복을 통해서 사회 구성이 변화하게 된다.

뒷장에 계속 ☞

Ⅰ. 제시문 (가)를 500자 내외로 요약하시오. (30점)

Ⅱ.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의 견해를 비교하고, 제시문들을 참고하여 학문의 진보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논술하시오. (50점)

Ⅲ. 제시문 (라)에서 학습에 의해 사회 구성이 변동할 것이지만,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 사회 구성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도 있다. 제시문에 근거하여 사회 구성이 일정하게 유지될 일반적 조건을 서술하고, 제시문에서 기술된 특정한 경우에 사회 구성을 일정하게 유지할 $p$와 $s$의 관계를 설명하시오. (20점)

**※ 유의 사항**

1. 답안에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을 쓰지 말 것.
2. 답안에 제목을 달지 말 것.
3.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말 것.
4.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Ⅰ은 500자(±50자), Ⅱ는 1,000자(±100자)가 되게 할 것.